



YBLN 포럼 및 네트워크 소그룹

안내

일시: 10월 12일 (월) 오후 2시 ~ 6시
2015 경주 YBNL

포럼 일정

○ 2시~3시: 포럼

- 주제 → 경영자로서 자기 발전(능력, 지식, 건강 등)을 위해 얼마나 많은 투자(돈, 시간 등)를 하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 3시~3시10분: 회장님 메세지

- 회장님 동영상 관람

○ 3시10분~5시: 3개 사례연구

- 주제: 사례 연구 (3개 사례중 택1)

○ 5시~5시20분: 카톡 업로드

- 모더레이터: 결과를 카톡에 올립니다.

○ 5시20~6시: 최종 토의 및 설문조사

- 다른 그룹의 토의 내용 공유 (카톡 결과 공유)

※중요!

6:10분까지 정장 지하1층 집합입니다. “영비즈의 밤”에 늦지 마세요.



그룹 및 장소 안내

1조 (장소: 2층 에메랄드)

- 모더레이터: 박세훈
- 멤버: 강석원, 권혁대, 김알렉산드르Alex Kim, 노형우, 손정원, 양경부, 이상길, (장윤수), 조상백, 홍선

2조 (장소: 2층 루비)

- 모더레이터: 강신우
- 멤버: 김근화, 김은미, 문광일, (손창빈), 양승호, 이상명, 이지영, 장현영, 조원서, 김상규

3조 (장소: 2층 오팔)

- 모더레이터: 양청해
- 멤버: 강영균, 김기연, 김정훈, 박광재, 손현석, 이상준, 이진우, 전우경, 천주환

4조 (장소: 2층 보문A)

- 모더레이터: 이효식
- 멤버: 강정훈, 이승주, 김종현, 박상범, 송문석, 오송학, 이상현, 정숙천, 최분도

8 조 (장소: 2층 메이플)

- 모더레이터: 김세진
- 멤버: (고해정), 김형교, 박원규, 안병일, 윤휘, 이승민, 임호성, 정철현, 최혁

7 조 (장소: 2층 보문홀)

- 모더레이터: 심영진
- 멤버: 고재훈, 김성욱, 김현수, 박영준, 윤정묵, 이성현, 임승관, 정주호, 최태영

6 조 (장소: 2층 보문홀)

- 모더레이터: 강혁준
- 멤버: 김석범, 김창현, 이정용, 신지훈, 우정훈, 이상훈(일본), 임성두, (정응주), 최상민

5 조 (장소: 2층 보문B)

- 모더레이터: 송종원
- 멤버: 강지화, 김덕홍, 김진범, 박상진, 오영준, 이상훈(영국), 임기영, 정용완, 최산운

9 조 (장소: 2층 아델리아)

- 모더레이터: 김덕기
- 멤버: 구태형, 김승암, 김홍범, 서정일, 안수연, 이다경, 장석연, 조동제, 한균식

10 조 (장소: 2층 마호가니)

- 모더레이터: 권용태
- 멤버: 김신재, 김홍석, 서준형, 안찬현, 이미령, 이일수, 장승호, 조범상, 허심규

※ 모든 장소는
현대 호텔 2층입니다.

Reading: 사례 선택 - Case 1

도상이는 YBLN 2년차이다. 그는 멤버가 된 후 정기포럼, 시티포럼, 지역포럼을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그 결과 지난 2년 간 많은 사람을 알게 되었다. 세계 각지 멤버들의 인생 이야기, 사업 이야기를 듣노라면 밤을 새기 일수였다. 도상이는 YBLN을 만난 이후로 자신의 인생관, 자녀관, 직업관 등 가치관에 큰 도전을 받게 되었다. 이것은 마치 수 십 명의 멘토를 한꺼번에 얻은 듯한 느낌이었다.

한편, 너무 열심히 참여하다보니 비용도 만만찮게 들었다. 비행기, 호텔, 식당, 술집에 들어 간 돈을 합하면 수천만원이었다. 처음에는 회사경비로 처리를 했지만, 결국 개인 비자금까지 다 써버렸다. 모임에 참여하느라 많은 시간을 해외에서 보내다 보니, 아내와 아이들도 서운해 하는 것 같고, 회사 내 간부들도 어딘가 기강이 해이해진 듯했다. 문득문득 아래와 같은 생각이 자주 떠올랐다.

‘YBLN 멤버들은 모두 기업인들이지 않은가? 비즈니스 교류도 없이 밤낮 술만 먹는 것은 정말 아깝지 않은가?’

그러던 어느 날, 도상이는 어떤 포럼에서 밤늦게 술을 먹다가 규원이 형과 둘만 남게 되었다. 규원이 형은 도상이가 맘에 들었는지 자신의 비즈니스 고민을 털어 놓았다. 도상이 입장에서는 자신의 경험과 유사한 일도 많다고 느꼈다. 또 앞으로 겪게 될 것 같은 일들도 있었다. 자연스럽게 도상이도 몇 가지 고민을 털어 놓게 되었다. 얼마 가지 않아 도상이와 규원이는 둘만의 비밀이 꽤 있는 관계가 되었다. 자주는 아니지만 몇 달에 한 번씩은 만나서 같이 술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비즈니스에 관한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도상이는 바로 이것이 YBLN의 진정한 가치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몇 달 전, 오랜 만에 만난 자리에서 규원이가 갑자기 도상이에게 같이 비즈니스를 해보자고 제안을 했다. 도상이는 괜찮은 비즈니스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확신이 가지는 않았다. 과연 투자를 해도 될까? 규원이 형은 멤버들에게 인기도 많고 YBLN에 가입한 지도 오래되어서 왠지 신뢰가 갔다. 특별히 변호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었다. YBLN내에도 변호사 멤버가 여럿 있지만 이야기해봐야 더 복잡해지기만 할 것이다. 특히 규원이 형 부탁도 있어서 다른 멤버들에게는 비밀로 해두기로 했다. YBLN이라는 신뢰를 통해 사업합작을 하게 되니 모든 절차가 간결하고 순조로웠다.

지난 주 도상이는 우연히 규원이 형이 사업에 관련된 중요한 한가지를 자신에게 숨겨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표현하기 힘든 배신감이 밀려왔다. 동갑내기 친한 멤버인 수일이에게 이 사실을 얘기했더니, 오래된 멤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어쩌면 규원이 형도 내가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아무리 그렇다하더라도 투자를 하기 전에 직접 양해를 구했어야 하지 않았나? 아무런 계약서도 없이 투자를 한 것이 후회가 되었다. 아니 잘 알지도 못하는 비즈니스에 뛰어들어 자신이 부끄러웠다. 아니 만난 지 2년 밖에 안되는 사람을 형동생처럼 친하게 되었다고 신뢰를 준 자신이 기업인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생각에 자괴감조차 들었다.

Reading: 사례 선택 - Case 1

수일은 도상에게 이 투자 건을 비즈니스위원회에 알리고 위원회의 조언을 들으라는 권유를 했다. 투자를 중지하게 되면 규원이 형과의 관계가 나빠질 것은 분명하다. 합작 사실을 공개하게 되면 규원의 입장이 난처해 질 것이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YBLN 10년 역사에 멤버 간 비즈니스에 대한 간단한 룰조차 없다는 것이 집행부의 무책임함처럼 느껴졌다. 결국 도상은 친한 멤버 몇 사람을 불러서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일: 개성상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YBLN도 내부의 비즈니스를 만들어야 해. 수평적 네트워크는 개인 간에 지켜야 하는 엄격한 규율이 있어야 비로소 유지될 수 있어.

재신: 아냐 YBLN은 친목모임이야. 멤버간 비즈니스를 못하게 해야 해. 서로 정보를 얻어주고 코칭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

정해: 수일아, 재신아 너네 둘 다 현실적이지 못하다. 비즈니스는 개인 간 알아서 할 문제야. YBLN이 뭐라고 룰 같은 것을 만들어? 또 왜 못하게 억지로 막아?

재신: 나는 비즈니스는 자제해야한다고 봐. 어쩔 수 없이 해야한다면, 단순 거래이든, 투자이든, 합작이든 전부 신고제로 해서 진행내용을 비즈니스위원회에 오픈해야 해.

정해: 재신이 너 정말 웃긴다. 우리가 공산주의야? 무슨 협회야? 자율적인 규율이 형성되어야 비로소 오래 갈 수 있는 힘이 되는거야. 신고제는 정말 웃기는 짓이야.

도상: 너네 그만해라. 만약 비즈니스를 못하게 한다면 그 많은 포럼에 참석하는 것은 돈 낭비야. 룰을 만들거나 신고제를 한다면 정말 딱딱한 조직이 될거야. 나는 그냥 탈퇴하고 친해진 사람들만 만나기도 하고 비즈니스 하기도 하면서 살꺼야.

 조언을 받기 위해 친한 멤버들을 불렀는데, 의견은 각양각색이었고, 도상이는 YBLN을 탈퇴해야겠다는 생각만 자꾸 들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의견을 내어 놓았을까?

Reading: 사례 선택 - Case 2

2018년 개띠의 해. 학송이는 82년생 개띠다. 올해 한국나이 38세가 되었다. 학송이는 2014년 부산한상대회 때 YBLN 멤버가 되었다. 군대를 제대한 후 20대에 혼자 해외로 나가서 갖은 고생을 하면서 기업을 일구어 냈다. 현재 기업의 년매출 규모는 한국 돈으로 약 200억원 정도.

2014년 YBLN에 처음 합류했을 때 정말 좋았다. 100여 명을 한꺼번에 만났는데, 매력적인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니었다. 모두가 살아 온 인생도, 살고 있는 지역도 달랐다. 그러나 코리안이라는 것 하나로 금방 친해졌고, 사업가이기 때문에 서로 나눌 수 있는 화제가 많았다. 기업규모가 크건 작건, 선진국에 살든 후진국에 살든, 나이가 많건 적건 서로가 어울려서 형제자매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흥분 그 자체였다.

학송이는 YBLN 행사만 있으면 꼭 참여하려고 노력했다. 행사 때 잠시 만났던 멤버들은 그 자체로 아쉬움이 있어서 따로 연락해서 만나곤 했다. 그러다 보니 거의 매달 한 두 번은 YBLN 멤버들을 만나는 데 시간을 보냈다. 해외 출장을 가면 그 지역의 멤버들을 꼭 만나려고 노력했고, 본인이 살고 있는 홍콩에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만나려고 했다. 이러다보니 어떨 때는 거의 매주 YBLN 멤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 회원수가 2016년 200명을 넘고 2017년 250명, 2018년 현재 330명이 되었다. 이제 A가 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150명 정도. 여기서 안다는 것은 이름과 얼굴이 매칭이 되고,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지, 성격이 어떤 사람인지,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아는 정도이다. 요즘은 홍콩에 찾아 오는 멤버들을 일일이 만나지 못한다. 어떨 때는 일부러 만든 핑계를 대기도 한다. 물론 반가운 사람도 있다. 그러나, 전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자기가 몇 년 생 형이라고 하면서 바로 반말을 쓴다. 자연스럽게 사람을 자꾸 외면하게 되었다. YBLN도 귀찮아지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이제는 본인이 타지역에 출장을 가도 그냥 조용히 다녀오곤 한다. 그러다가 공항에서 다른 멤버들을 만나 사진이라도 찍히면 참 곤란하다.

수완이는 2007년에 합류한 10년차이다. 70년생 개띠로 이제 한국나이 50세가 되었다. 년매출은 500억 정도. 이제 제법 안정되었다. 수완이는 지난 10년간 YBLN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다. 아마 YBLN이 아니었으면 회사는 더 키울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YBLN을 이용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었지만 주로 다른 회원들을 돕는 일 외에는 비즈니스를 만들지 않았다. 왜냐하면 수완이는 유대인과 화교를 뛰어넘는 위대한 코리안 네트워크를 만든다는 꿈을 갖고 살아왔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시도했지만 결국 모두 정치적 조직으로 전락되고 말았다. 그러나 YBLN만큼은 순수한 동포애로 뭉쳐서 사적인 이익을 우선하지 않고 전세계적인 민족 대단결을 이루어내고 있다. 이제는 자녀들까지 가입하기 시작했다.

Reading: 사례 선택 - Case 2

수완이는 여생을 YBLN을 위해 보낼 생각이다. 수완이는 아무런 정치적 야망도 없다. 그러나 이일을 해낼 수만 있다면, 기업을 일군 것 훨씬 이상의 보람을 얻을 것이라 확신한다. 수완이가 나이 80세가 될 때까지 향후 30년 노력을 하게 되면 YBLN은 드디어 3대까지 뻗어 갈 것이다. 수적으로 매년 20%씩 성장만 해도 수십만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 꿈을 가슴에 품은 이후부터는 하루하루가 가슴 뛰는 시간들이었다.

2018년 조선에서는 처음으로 개성에서 한상대회가 열렸다. 아니, 대회 이름도 한상대회가 아니라 려상대회로 바꾸었다. KOREA의 유래인 '고려'에서 '아름답다'는 뜻인 '려'자를 딴 것이다. 그리고, 조선의 기업가들을 받아들이면서 글자표기도 두음 법칙을 따라 '여'라고 하지 않고 '려'라고 썼다. 암튼 역사적인 통합의 개의 해를 맞아 개띠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기로 했다. 학송이가 약속시간보다 30분 먼저 도착했을 때 이미 수완이 형은 도착해서 조선에서 편찬된 '조선왕조실록해서'를 읽고 있었다. 평소 좋아하던 형이라서 학송이는 자기 마음에 있던 얘기를 털어 놓았다.

학송: 수완이형, 저는 더 이상 모르는 사람들을 형동생처럼 대할 수가 없어요. 알게 모르게 비즈니스에도 집중할 수가 없어요. 저는 YBLN 가입을 신중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비록 훌륭하고 멋진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모두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식으로 계속 사람을 받다 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결국 형이 싫어하는 그런 정치적 집단으로 변해 갈 것이 분명해요.

수완: 학송아, 너무 욕심내지 마. 나는 네가 들어왔을 때 너무 열심히 멤버들을 만나러 다녀서 한편으로는 대견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도 좀 했단다. 어떤 모임이든지 좋은 사람이 있고 별로인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지. 좋은 사람들로만 모임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네가 욕심을 내려놓고 사람들을 적절히 거리를 두면서 만나게 되면 네 마음도 편해지고 또 네 시간도 네 사업도 큰 방해를 받지 않게 될꺼야. 너무 걱정마.

학송: 형, 그러면 우리 호칭을 서로 무슨 사장님, 대표님, 회장님으로 바꾸면 안될까요? 저는 겉으로 형이라 부르면서 부탁하나 들어주지 못하고 이리저리 피하고, 동생으로 대하면서 집에 밥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지도 못하는 내 자신이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형동생으로 지내던 것은 100-200명 정도되던 초창기였지요. 이제는 서로 잘 알기도 힘들 정도로 멤버들의 숫자가 많아졌어요. 깊이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역지라고 생각해요. 넓이를 선택했다면 이제는 더 이상 깊어지기 힘들다는 것을 인정해야지요.

Reading: 사례 선택 - Case 2

수완: 그렇게 되면 우리 YBLN이 여타 다른 조직하고 별 다를 바가 없게 된단다. 우리는 고려민족이야. 옛 고조선부터 고구려, 신라,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하나로 뭉쳐서 살아 왔지. 이제는 전세계 백 여개의 나라에 뿔어 나갔어. 우리 YBLN이 비록 숫자는 적지만 백 여개 나라에 멤버들을 두고 동포애로 똘똘 뭉친 네트워크를 훌륭하게 만들어 냈어. 우리 YBLN에만 들어 오면 전세계에 삼촌과 이모를 갖게 되는 거야. 멋지지 않아? 우리는 한 가족이야. 한 가족이 형동생누나오빠를 하는데 뭐가 이상하겠니? 물론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 그럴 때에는 잃어 버렸던 가족을 찾았다고 상상을 해봐. 하하. 그게 바로 우리 YBLN이야. 세월이 더 흐르면 우리는 유대인과 중국인을 넘어서는 위대한 네트워크를 만들게 될거야.

학송: 형, 그건 려상대회의 비전이잖아요. 형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려상대회에 적극 참여하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과연 우리 YBLN 멤버들이 형처럼 역사적 소명을 갖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개띠들이 한 명 두 명 도착하면서 토론은 점입가경이 되었다. 개성에서 열린 첫 한상대회였기 때문에 조선과 중국동포 YBLF 신규참여자들이 유난히 많았다. 이들은 한국출신들이 한민족이라는 말을 쓰는 오만함에 대해 지적을 하면서 조선민족이라는 말을 써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해결책이 없어 보이는 대립이 이어지자,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온 알렉스가 갖배운 따끈한 한국말, 조선말, 아니 고려말로 ‘고려민족’이라 하면 어떻냐는 중재를 했다.

학송이는 꽤 당황스러웠지만 이런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회원 가입 속도를 좀 천천히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 반면 수완이는 앞으로 중국동포와 조선인들, 고려인들만큼은 가입문턱을 차별적으로 낮춤으로써 향후 1-2년 내에 200명 정도를 더 참여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 수적균형이 맞아야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민족적 대단함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 여러분이 만약 이 모임에 참석한 개띠였다면 YBLN의 ‘깊이를 유지하자’와 ‘넓게 확대해 나가자’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내어 놓았을까?

Reading: 사례 선택 - Case 3

수경이는 30대 중반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여성 사업가이다. 콜롬비아 대표를 맡은 지 반 년이 되었다. 콜롬비아는 첫 멤버가 잘생겼기 때문인지 미남미녀만 뽑아서 옛날에는 숫자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가 매년 꾸준히 회원을 영입하면서 지금은 전체 YBLN에서도 회원수가 제법 많은 지역이 되어 가고 있다. 수경이는 YBLN이 본인 인생에서 너무나 소중한기 때문에, 한 지역의 대표로서 YBLN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정말 신나는 일일 줄 알았다. 그러나, 한참 잘못된 생각이었다. 수경이는 지역대표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고민은 신규회원을 받는 일이다. 미꾸라지 한마리가 온 연못을 흙탕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한국 속담이 있다. 그래서 콜롬비아는 새로운 회원을 받을 때 아무나 받지 않는다. 좋은 사람이 있을 때는 회원이 먼저 대표에게 추천을 한다. 그 사람의 평판이 괜찮다는 확인이 된 후에는 마치 우연인 것처럼 지역모임 2차에 합류하게 해서 어떤 사람인지 찬찬히 살펴본다.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하지 않았는가? 사람은 한 두 번 만나서는 제대로 알 수 없다. 그래서 제법 긴 시간을 지켜보다가 오랫동안 별문제가 없으면 비로소 YBLN 회원으로 추천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콜롬비아의 단결을 깨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지역 검증의 임무도 충실하게 해내는 것임이 분명하다.

석현이는 콜롬비아에서 공장을 하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베트남에도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사람이 콜롬비아가 모르게 YBLN에 가입신청을 했다. 수경이는 시티포럼에 가서야 이 사람이 YBLN에 지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실 콜롬비아의 많은 회원들이 석현이를 안다. 그러나, 석현이는 콜롬비아의 오래된 회원 운산이와 사업적으로 좋지 않은 인연이 있었다. 진실이야 어찌되었건 자주 얼굴을 보기가 불편한 사람이다. 만약 석현이가 YBLN에 들어온다면 운산이가 모임에 나오지 않을 지도 모른다.

수경이는 지역대표로서 멤버십위원회에 항의를 했다. 그런데, 멤버십위원회로부터 문제 삼지 않겠다는 답변이 왔다. 석현씨를 베트남으로부터 추천을 받았으며, 베트남 지역대표로부터 지역검증을 거쳤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규회원 가입 절차 상 기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때 수경은 반대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했다. 특별히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지역화합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멤버십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많은 비용을 들여 시티포럼까지 온 사람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한다. 더구나, 베트남 입장에서는 콜롬비아의 반대를 받아 들이기 힘들 것이라는 주장까지 했다. 정말 이건 아니라고 느꼈지만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어서 항의를 그만두었다.

Reading: 사례 선택 - Case 3

2년이 흘러 석현이가 콜롬비아로 소속을 옮기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 수경은 멤버십위원회에 석현의 소속이동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단호하게 전달했다. 그러나, 멤버십위원회에서는 석현의 가족이 콜롬비아로 이사를 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콜롬비아에서 보내기 때문에 개인의 의사에 따라 소속변경을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수경은 멤버십위원장 우형과 무려 2시간의 통화를 했다. 두 사람은 나이가 같았다.

수경: YBLN이 잘되려면 지역이 우선 잘되어야 해. 멤버십 위원회는 각 지역을 존중해야 훌륭한 멤버를 뽑고 잘 유지할 수 있다고 믿어.

우형: YBLN은 개인의 네트워크이지 지역간 연합조직이 아니야. 각 지역이 사람을 받고 안받고에 관여한다면 의사결정이 너무 복잡해지게 돼. 더 많은 갈등이 빚어질꺼야.

수경: 콜롬비아는 오랜 세월 지켜온 것이 있어. YBLN은 지역의 특수성을 존중하는 게 마땅해. 예를들어 콜롬비아는 외부에서 회원들이 오면 접대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지역이야. 그래서 여태까지 회원들이 꾸준히 모은 회비가 적지 않아. 새로 들어오는 멤버는 남은 금액의 $1/n$ 을 내야 해.

우형: 콜롬비아가 모든 지역의 모범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식으로 운영하면 배타적인 조직이 되어 버려. YBLN은 회원수가 많은 지역이 발언권을 더 가지는 그런 정치조직이 아니야.

수경: 너는 각 지역을 깊이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순수한 의도를 나쁘게 몰아가고 있어. 멤버십위원회가 무슨 권력이라 도 되니?

우형: 회원수가 많은 지역의 대표라고 전체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니? 그것이야말로 권력 아니야?

감정이 격해지다보니 목소리가 점점 높아만 갔다. 수경과 우형은 본래 서로를 존경하고 좋아했다. 이들은 다소 감정적이었던 부분에 대해서 즉시 사과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한 달 후 회장과 함께 프랑크푸르트에서 만나 남은 이야기를 이어가기로 했다.

➔ 만약 당신이 회장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Case 3: p. 2